V. 결 론

□ **자연재해보험은 자연재해라는 국가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위험관리측면에서는 국가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척도로 보는 견해[10]가 있음**

o 자연재해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위험으로 국가적 해결 과제이며,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보험이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

o 자연재해보험은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관리주체인 일반국민, 정책주체인 정부 및 보험업계의 공동 노력과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제도임

□ **따라서, 국민 불안의 해소, 국가위험의 해결, 보험시장의 확대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참여 검토가 필요함**

o 특히, 손해보험업계의 저성장 기조와 고유분야인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(FY2003년 : 13.3%)를 고려할 때, 신시장의 개척・확대가 절실하고,

- 초기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자연재해위험시장의 보상제도화 또는 공제제도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시장참여방안 및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, 자연재해위험의 평가모델 개발, 날씨파생상품 도입방안, 화재보험의 풍수재담보 효율화 방안 등도 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이라 판단됨

10) 세계적인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(Peter F. Drucker)는 "보험과 손실통제를 통한 위험관리능력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."고 말한 바 있고, 최근 Swiss Re.의 자연재해관련 보고서(Swiss Re's Focus Report, Flood is Insurable!, 2002)에서는 국민, 민영보험자와 정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강조한 바 있음